

사는 지혜

현대사회는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의 습득 차원을 넘어 홍수처럼 밀려드는 수 많은 정보들을 가려내어 익히고 또는 버릴 수 있는 여지마저 없이 무차별적으로 습득되어 버리는 쓰레기 같은 정보(?)들마저도 어느 새 우리 일상을 점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진정한 정보와 쓰레기 정보를 헤아릴 수 있는 양식과 혜안을 갖춰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래 언급한 “바라봄으로 변화하고 행동한다”는 금언처럼요…..

우리는 영화나 TV나 인터넷에서 수 많은 비 정상적이고 감상적인 삼각 연애, 불륜을 예찬하는 연속극, 혼전, 혼외의 성 등이 정상으로 묘사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권태로운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본다.

또한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영상들과 서적들이 얼마나 유포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청하고 본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수없이 무차별적으로 보고 듣고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변화한다.", "바라봄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이다.
- 손운호(가정과 건강에서)

죄(罪)는 무서운 풍채를 가진 괴물이어서 보기만 하여도 몹시 싫어하게 되겠지만 너무 자주 보아 그 얼굴을 익히게 되면 우리는 우선 견디고 그 다음에는 동정하고, 그 다음에는 껴안게 된다.

- 영국의 옛 금언-

生きる知恵

現代社会は”情報の時代”と言います。

情報の習得次元を越えて洪水のように押し寄せてくる数多い情報を選び分けて煮てまたは拾うことができる余地さえなく無差別的に習得させられてしまうゴミみたいな情報(?) さえも日常を占めてしまうそんな時代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このような‘情報の洪水’の中で私たちが警戒して守るために絶え間ない努力と真正な情報とゴミ情報を推し量ることができる良識と慧眼を取り揃え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時であるようです。下に言及した“眺めることで変化して行動する。”は禁口のように……

私たちは映画やTVやインターネットで数多い非正常でセンチメンタルな三角恋愛、不倫を礼賛する連続ドラマ、婚前・婚外の性などが正常に描写されてむしろこんなものなどが倦怠感を感じずような生活の活力を吹き入れることに描写されることを見る。

また、残酷で暴力的で淫らで非道徳的な映像や書籍がいくら流布されているのか多くの人々が無防備状態で無差別的にそんなものなどを視聴してみる。しかしその危険性を感じる人はあまりいない。

私たちの憶えることがある。

そんなものを数えきれないほど無差別的に見て聞いてからも私たちが影響を受けないと思うことはとても純粋な考えだということを”眺めることで変化する。”、“眺めることで行動するようになる。”と言うのは万苦不変の真理だ。

-ソンユンホ (家庭と健康で)

罪は恐ろしい体を持った化け物なので見るだけで大変嫌やがるようになるが、あまりよく見てその顔をなじむようになれば私たちはまず耐えてその次には同情して、その次には抱えこむようになる。

-イギリスの昔の金言-